

## 한국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지위 분석: 진로효능감, 부모 진로지지, 진로장벽의 차이를 중심으로\*

유혜승(柳慧承)\*\*

### 논문 요약

본 연구는 다차원 진로정체감 지위 평가 모형(Vocational Identity Status Assessment: VISA)을 토대로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지위를 분류하고, 분류된 각 진로정체감 지위 집단별로 진로효능감, 부모 진로지지, 진로장벽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 경기, 강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857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 지위는 성취, 유예, 유실, 확산된 흥미, 무관심한 흥미의 5개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분류된 각각의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라 진로효능감, 부모 진로지지, 진로장벽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진로정체감 성취와 유실 지위가 다른 지위에 비해 진로효능감, 부모 진로지지 수준이 높고 진로장벽 수준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확산된 흥미 지위는 진로효능감과 부모 진로지지 수준이 가장 낮고, 진로장벽 수준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진로정체감 유실 지위는 진로효능감, 부모 진로지지, 진로장벽에 있어서 진로정체감 성취 지위와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유예 지위보다 진로 발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적 시사점을 논의하고 향후 진로정체감 연구에 관한 제언을 하였다.

주요어 : 진로정체감 지위, 진로효능감, 부모 진로지지, 진로장벽

\* 이 논문은 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을 기반으로 수정·보완한 것임.

\*\* 연세대학교 교육학과(ysepsy@yonsei.ac.kr)

## I. 서론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school to work transition)을 앞둔 대학생 시기는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와 탐색을 토대로 진로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준비가 요구되는 시기이다. 진로정체감은 개인이 진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목표, 흥미, 능력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된 자아상으로(Holland, 1985),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해나가는 방향에 대한 틀을 제공한다. 따라서 명확한 진로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은 대학생 시기에 달성해야 할 핵심적인 발달과업이며 진로발달의 핵심적인 요소이다(Hirschi, 2011; Skorikov & Vondracek, 2007).

진로정체감의 확립이 대학생들의 진로발달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진로정체감 및 관련 변인들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진로정체감 지위를 측정하는 도구가 부족한 상황으로, 기존 연구들은 진로정체감을 단일의 구성체로 간주하여 개인의 진로정체감을 단순히 높거나 낮다고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거나 심지어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을 동일 개념으로 간주하여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기도 하였다. 특히, 진로정체감 발달 수준의 개인차를 진단할 수 있는 진로정체감 지위(career identity status)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정체감은 여러 차원의 복합적인 구성체로서 단순한 이분법적 관점은 개인의 진로정체감 발달 상태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정체감 형성의 다양한 측면들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진로정체감은 자아정체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동일한 개념이 아니며 진로발달을 설명하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구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서유란, 이상희, 2012; Porfeli et al., 2011; Skorikov & Vondracek, 2007). 따라서 진로정체감 형성 및 발달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도구를 사용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진로정체감 발달 양상을 파악하고 이러한 발달상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Marcia(1980)의 정체감 지위 패러다임은 개인이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는 위기(crisis)와 전념(commitment)의 정도에 따라 정체감을 성취(achievement), 유예(moratorium), 유실(foreclosure), 혼미(diffusion)의 네 가지 지위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Marcia의 접근 방법은 Erikson의 정체감 이론을 검증하기에는 폭이 좁고 발달과정의 연속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Blasi & Glodis, 1995; Van Hoof, 1999), 보다 역동적인 관점에서 Marcia의 패러다임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전개되었다(Archer & Waterman, 1990; Bosma & Kunnen, 2001; Crocetti et al., 2008; Luyckx et al., 2008; Meeus, 1996). 이러한 노력을 토대로 최근 Porfeli 등(2011)은 진로 영역에서의 정체감 지위를 보다 정교하게 분류할 수 있는 다차원 진로정체감 지위 평가 모형(Vocational Identity Status Assessment: VISA)을 제안하였다. 이 모형은 Marcia

의 정체감 지위 패러다임을 보다 확장시킨 것으로 진로탐색, 진로전념, 진로재고의 세 가지 차원을 포함하며, 이를 세분화하여 광범위한 진로탐색, 구체적인 진로탐색, 진로전념(하기), 진로전념확신, 진로자기의심, 진로유동성의 여섯 가지 기준에 의해 진로정체감 지위를 구분한다. 이 모형에서 제안된 다양한 차원에 근거하여 진로정체감 지위를 분류하는 것은 복합적인 구성체인 진로정체감을 여러 차원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세분화하여 분류할 수 있게 해주며 개인의 진로 발달 상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차원 진로정체감 지위 평가 모형을 통해 진로정체감 지위를 분류함으로써 우리나라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발달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진로관련 연구들은 진로정체감과 관련 있는 변인으로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진로태도성숙, 우울, 불안 등 개인적 차원의 변인들을 주로 다루었다(Luyckx et al., 2008; Porfeli et al., 2011; Strauser et al., 2008). 그러나 개인이 진로에 대해 탐색하고 결정하는 과정에는 개인 내적 요인들뿐만 아니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문화적·환경적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게 된다(Lent, Brown, & Hackett, 2000). 그러므로 진로정체감 발달상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이 무엇이며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라 어떤 특성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심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개인을 지원하거나 제약할 수 있는 개인 외적인 요인들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진로효능감은 개인의 진로발달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인 내적 특성으로 진로탐색행동, 진로준비행동, 진로성숙, 진로선택, 진로결정 등과 유의한 관련이 있으며(김민정, 김봉환, 2014; 이종원, 최은수, 2015; 주영주 외, 2015), 진로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서도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진성희, 성은모, 2012; Duffy et al., 2013). 한편,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환경적 요인에는 가정환경, 학교환경, 또래관계 등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부모의 지지, 부모-자녀관계, 가족체계 등과 같은 가정환경 요인이 진로발달과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송현심, 홍혜영, 2010; 장진이, 이지연, 2016; Holland, 1981). 특히, 자녀의 진로와 관련된 부모의 지지는 자녀가 직업적 발달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되며 진로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장수현, 유성경, 2014; Noack et al., 2010; Stringer & Kerpelman, 2010; Tunner et al., 2003). 또한 진로장벽은 진로 관련 과제 수행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거나 진로발달을 어렵게 하는 개인 내적 혹은 환경적인 요인으로 개인의 진로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신선임, 김수임, 2013; 오은주, 2016; Imran, Jabbar & Butt. 2013).

이에 본 연구는 다차원 진로정체감 지위 평가 모형을 적용하여 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 지위를 분류하고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라 진로효능감, 부모 진로지지, 진로장벽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지위 발달 양상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탐색하고자 하

었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 형성 및 진로발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개별화된 진단과 개입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학생들이 진로정체감을 확립하고 진로에 관한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다루어나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은 다차원 진로정체감 지위 평가 모형의 세 가지 차원(진로탐색, 진로전념, 진로재고), 여섯 가지 하위영역(광범위한 탐색, 구체적인 탐색, 진로전념하기, 진로전념확신, 진로자기의심, 진로유동성)에 의해 어떠한 양상으로 분류되는가?
- (2) 분류된 진로정체감 지위 집단별로 진로관련 내·외적 변인인 진로효능감, 부모 진로지지, 진로장벽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진로정체감 지위

진로정체감은 자아정체감(Erikson, 1968) 개념을 직업적 영역에 적용한 것으로, 개인이 진로와 관련된 목표, 흥미, 능력 등에 대해 얼마나 명확하고 안정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진로발달의 인지적인 측면이다(서유란, 이상희, 2012; 최옥현, 김봉환, 2007; Holland, 1985). 진로발달은 특정한 시기에 수행하는 일회적인 발달과제라기보다는 일생에 걸쳐 수행되는 연속적인 발달과제로, 개인은 일생에 걸쳐 진로 변화의 가능성을 가진 채 끊임없는 진로의사결정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 때 진로정체감은 진로 목표설정 및 실행방향에 대한 틀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이 처한 상황에 적절한 진로행동을 선택하고 지속해 나가는데 도움을 준다(Holland, Daiger, & Power, 1980). 선행연구에 의하면 명확한 진로정체감을 형성한 청소년과 성인들은 진로 전환을 보다 성공적으로 이루며, 직업적 흥미의 분화, 직무몰입 혹은 조화, 심리적 안녕감, 진로효능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Diemer & Blustein, 2007; Gushue et al., 2006; Nauta & Kahn, 2007). 또한 명확한 진로정체감을 형성한 사람은 긍정적인 진로 결정에 대한 확신이 있으며(Gushue et al., 2006), 자신감, 진로의사결정, 진로성숙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Holland et al., 1980).

진로정체감 지위는 진로정체감 형성 과정뿐만 아니라, 진로정체감 형성 수준의 개인차를 함께 진단하고자 하는 개념으로(신명희 외, 2013), Marcia(1980)의 정체감 지위 패러다임은 정체감 형성에 관한 연구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Marcia는 정체감 위기(혹은 탐색)의 경험 여부와 과업에 대한 전념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근거하여 정체감 성취, 유예, 유실, 혼미의 네 범주

로 분류하고 이를 정체감 지위로 개념화하였다. Marcia의 이론에 근거할 때, 진로정체감 성취 지위는 다양한 직업적 대안들에 대해 스스로 탐색과정을 거쳐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전념하고 있는 상태로 가장 성숙하고 안정적인 지위로 인식된다. 유예 지위는 진로에 대한 탐색은 하고 있으나 아직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로 진로정체감 위기나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전념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유실 지위는 진로와 관련하여 탐색과정이나 위기를 거치지 않고 전념하고 있는 상태로, 부모 혹은 의미 있는 타자의 직업과 가치를 그대로 수용하여 특정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특성이 있다. 끝으로 혼미 지위는 진로에 대한 방향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로, 진로대안들을 탐색하는 과정에 참여하지도 않고 전념하지도 못한 채 혼란스러워 하는 상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Marcia의 정체감 지위 패러다임을 보다 확장시켜 Luyckx 등(2005)은 탐색과 전념에 보다 다양한 차원이 존재한다고 보고, 탐색은 광범위한 탐색(exploration in breadth)과 구체적인 탐색(exploration in depth)으로, 전념은 전념하기(commitment making)와 전념에 대한 확신(identification with commitment)으로 세분화하였다. 광범위한 탐색은 진로선택을 위해 다양한 진로대안들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탐색은 현재의 전념이 개인적 목표 및 기준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현재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전념(하기)는 진로에 대한 선택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념에 대한 확신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의미한다. 이후 Luyckx 등(2008)은 선택을 망설이거나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 걱정하고 의심하는 것을 뜻하는 반추적 탐색(ruminative exploration)이라는 다섯 번째 차원을 모형에 추가하여 정체감 지위를 분류한 결과, 성취, 유실, 반추적 유예, 확산된 혼미, 무관심한 혼미, 미분화로 분류된다고 제안하였다.

Crocetti 등(2008)은 Meeus(1996)의 연구를 기반으로 전념과 구체적 탐색, 그리고 전념에 대한 재고(reconsideration of commitment)를 정체감 형성의 핵심과정으로 고려한 모형을 개발하였다. 여기서 전념에 대한 재고는 현재의 전념과 다른 가능한 대안들을 비교하고 현재의 전념을 변경하고자 하는 개인의 노력을 의미한다. 이 모형에 의해 정체감 지위를 분류한 결과, 성취, 유실, 혼미, 유예, 탐색적 유예로 세분화되었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탐색과 전념 및 재고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3요인 모형이 단일요인 모형이나 2요인 모형보다 더 적합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Crocetti et al., 2008).

최근 Porfeli 등(2011)은 Luyckx 모형과 Meeus와 Crocetti의 모형을 토대로 진로정체감 지위를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분류할 수 있는 다차원 진로정체감 지위 평가 모형(VISA)을 제안하였다. 이 모형은 이전 연구자들이 탐색과 전념 차원을 세분화한 것에서 더 확장하여 재고 차원의 구성요소를 진로자기의심(career self-doubt)과 진로유동성(career flexibility)으로 세분화하였다.

진로자기의심은 현재의 진로 선택에 대한 의심, 불안, 걱정 등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선택을 했는가에 대해 의문을 갖는 성향이며, 진로유동성은 다른 진로 대안들에 대해 활발히 지속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다차원 진로정체감 지위 평가 모형은 진로탐색, 진로전념, 진로재고의 세 가지 차원을 포함하며, 진로탐색 차원은 광범위한 진로탐색과 구체적인 진로탐색으로, 진로전념 차원은 진로전념하기와 진로전념에 대한 확신으로, 그리고 진로재고 차원은 진로자기의심과 진로유동성이라는 하위영역으로 세분화된다. 이 모형을 통해 진로정체감 지위를 분류한 결과, 진로정체감 성취, 유예, 유실, 혼미, 탐색적 유예(searching moratorium)와 미분화(undifferentiated)로 구분되었다(Porfeli et al., 2011). 이 연구에서 탐색적 유예는 진로전념과 탐색 및 재고 차원의 점수가 모두 높은 지위로, 진로전념 차원의 점수가 낮은 유예 지위와 구별되며 진로 자기의심과 진로유동성이 다른 지위에 비해 높은 특성을 보였다.

## 2. 진로정체감과 진로효능감, 부모 진로지지, 진로장벽 간의 관계

진로와 관련된 자기효능감은 진로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개인의 내적 특성으로, 진로탐색 및 진로발달 관련 변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진성희, 성은모, 2012; Gushue et al., 2006). 진로효능감은 Bandura(1977, 1997)의 자기효능감 이론이 진로 영역에 적용된 개념으로 진로탐색 및 진로선택과 관련된 중요한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효능감 기대를 의미한다(최옥현, 김봉환, 2007; Solberg et al., 1994). 선행연구에서 진로효능감은 진로정체감 및 진로탐색 활동 수준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으며, 진로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미결정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Nota et al., 2007; Solberg et al., 1995; Taylor & Popma, 1990). 또한 진로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에 대해 보다 명확한 목표와 흥미를 지니며 진로탐색 활동에 더욱 전념하고 진로준비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lustein, 1989; Gushue et al., 2006).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 선행연구에서 진로효능감은 높은 수준의 진로정체감, 진로적응성 및 확신을 가지고 진로탐색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자기탐색, 환경탐색, 진로미결정, 진로정체감, 진로성숙 및 진로적응성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종원, 최은수, 2015; 최옥현, 김봉환, 2007). 또한 진로효능감은 진로탐색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김민정, 김봉환, 2014), 전공만족도와 진로탐색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진성희, 성은모, 2012). 이처럼 진로효능감은 진로와 관련된 태도 및 행동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개인의 인지적 변인으로 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 지위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진로발달 분야에서는 진로발달과 관련하여 가족의 영향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부모는 자녀의 발달에 가장 영향력 있는 존재로 부모의 지지는 자녀의 가치관 형성 및 진로발달 과정에 중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임선아,

2012; Alliman-Brissett et al., 2004; Stringer & Kerpelman, 2010). 특히 가족중심주의, 관계주의 문화로 규정되는 한국문화에서는 부모의 영향력이 실로 지대하며 부모-자녀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이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사회적 적응 및 장기적인 진로계획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장진이, 이지연, 2016; 최인재, 2006). 자녀의 진로와 관련한 부모의 지지는 부모와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의 결과로 얻게 되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으로,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시킨다(손보영 외, 2013).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진로지지는 자녀로 하여금 자신과 환경 및 진로에 대한 탐색수준 및 합리적 의사결정력을 향상시키며(김지영, 김봉환, 2015; Larose & Boivin, 1998), 진로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등 진로에 대한 자기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손보영 외, 2013; 이현주, 2010). 또한 부모의 진로지지는 진로준비행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윤초희, 안태희, 2015; 한창훈, 조영아, 2016) 진로성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박지현, 2016; 안미경, 유금란, 2013), 구직행동에도 직·간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수현, 유성경, 2014).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윤초희(2015)의 연구에서 부모의 지지는 기본 심리욕구를 매개하여 진로정체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모 진로지지 중 도구적 조력과 정서적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으로 한 이현주(2010)의 연구는 부모의 진로관련행동 중 지지행동은 진로정체감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반면, 간섭이나 관여행동은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남학생은 부모의 간섭이 적을수록, 여학생은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활발할수록 진로정체감 발달이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모의 지지는 자녀의 진로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이며, 특히 대학생 시기는 부모-자녀간의 관계가 재구성되고 친구들의 영향력이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진로정체감 발달을 이해하는데 있어 부모의 진로지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회인지 진로이론(Lent et al., 2000)에 의하면 진로장벽은 교육적 또는 직업적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는 잠재적인 환경적 요인으로, 환경적 진로장벽이 개인의 진로흥미가 진로목표로 전환되는 과정을 매개함으로써 진로선택 및 진로수행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박용두, 이기학, 2007). Swanson과 Woitke(1997)는 진로장벽을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고, 진로와 관련된 과제 수행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진로수행을 어렵게 하는 개인 내적 혹은 환경적 조건이나 사건으로 정의하였다. 진로장벽 관련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진로장벽이 개인의 진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하고 있다(강현희, 2015; 이희정, 김금미, 2010; Lent et al., 2003; Lindley, 2005). 개인이 지각하는 진로장벽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선택 및 진로결정에 더 많은 제약을 받으며 진로성숙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미나, 박재황, 2011; 신선임, 김수임, 2013; 오은주, 2016; Imran, Jabbar & Butt, 2013). 또한 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포부 수준과 부적 상관이 있으며(강현희, 2015; 유채은, 조규판, 2012; 장이슬, 송병국, 2015),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수복, 윤혜

미, 2014; 정미경, 2015). 진로장벽은 진로정체감과도 부적 상관을 보이며(김경미 외, 2014), 지각된 진로장벽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낮고, 진로장벽에 대한 지각 수준이 낮을수록 보다 통합된 진로정체감을 갖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Gushue et al., 2006).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 강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에 재학중인 남녀 대학생 1,0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가능한 광범위한 지역을 포함하고 표집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10개 대학교를 선정, 표집하였으며 각 대학별로는 가급적 성별, 학년, 전공 등이 고루 포함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과 특성상 진로가 잠정적으로 결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간호대, 보건의료, 예체능 계열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설문에 응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하고 총 857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성별 분포는 남학생 494명(57.6%), 여학생 363명(42.4%)이며, 학년별로는 1학년 31명(3.6%), 2학년 225명(26.3%), 3학년 305명(35.6%), 4학년 296명(34.5%)이었다. 전공계열별로는 인문계열 179명(20.9%), 사회계열 192명(22.4%), 자연계열 166명(19.4%), 공학계열 165명(19.3%), 상경계열 155명(18.1%)이었다.

#### 2. 측정 도구

##### 1) 진로정체감 지위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지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Porfeli 등(2011)이 개발한 진로정체감 지위 평가 도구(Vocational Identity Status Assessment: VISA)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번안 과정은 먼저, 본 연구자가 초기 번역을 하고, 미국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박사 3인에게 검토 및 수정 과정을 거친 후, 영-한 통번역을 전문으로 하는 동시통역사를 통해 역번역을 실시하였다. 역번역 과정에서 원문항과 번안된 문항의 의미에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고 수정하는 절차를 거친 후, 교육학 전공 교수 3인의 최종 검토 및 확인을 받아 최종 문항을 확정하였다. 한국어로 번안한 문항들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원칙도와 동일하게 6개의 요인으로 묶였으며, 요인적재치가 .30미만인 3개 문항(진로에 대해 고민하면서 나의 가장 뛰어난



재능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다, 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진로를 선택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일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을 제외한 27개 문항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도출된 6요인구조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chi^2$ 값은 1475.25( $df=309$ ,  $p<.001$ ), CFI는 .91, TLI는 .89, RMSEA는 .06으로 나타났다. 보통 CFI, TLI는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해석하고, RMSEA는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8이하이면 괜찮은 적합도로 해석한다(홍세희, 2000).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적합도 지수가 양호 및 적합한 수준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설정한 진로정체감 지위 측정도구의 6요인모형이 구조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출된 요인은 광범위한 탐색, 구체적인 탐색, 진로전념(하기), 진로전념확신, 진로자기의심, 진로유동성으로 명명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있으며,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 )는 .71에서 .83으로 나타났다.

## 2) 진로효능감

Solberg 등(1994)이 개발한 진로탐색효능감 척도(Career Search Efficacy Scale: CSES)를 최옥현(2006)이 수정한 척도를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탐색효능감(4문항), 직업탐색효능감(6문항), 면접효능감(5문항), 관계구축 효능감(5문항)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탐색과업을 수행하는 확신의 정도가 높음을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하위요인들의 신뢰도 계수는 .78에서 .87로 나타났다.

## 3) 부모 진로지지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진로지지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이상희(2009)가 대학생용으로 개발한 부모 진로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정보적 지지(4문항), 대화적 지지(4문항), 정서적 지지(4문항), 경제적 지지(4문항), 경험적 지지(4문항)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진로지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하위요인들의 신뢰도 계수는 .80에서 .87로 나타났다.

## 4) 진로장벽

Tak & Lee(2003)가 개발한 한국대학생 진로결정장벽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직업정보 부족(6문항), 자기명확성부족(4문항), 우유부단한성격(4문항), 필요성인식부족(4문항), 외적장벽(4문항)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으로

지각하는 진로장벽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하위요인들의 신뢰도 계수는 .80에서 .90으로 나타났다.

### 3. 분석 방법

본 연구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21.0과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들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인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지위를 분류하기 위하여 계층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과 비계층적 군집분석방법(non-hierarchical cluster analysis)을 이용한 2단계 군집분석(two-step cluster analysis, Gore, 2000; Hair & Black, 2000; Luyckx et al., 2005)을 실시하였다. 1단계로 계층적 군집분석인 Ward 방법을 실시하여 제시된 군집화 일정표(agglomeration schedule)의 계수(coefficient)를 근거로 군집의 수를 결정하였으며, 2단계에서 비계층적 군집분석인 K-평균 군집분석(K-means clustering)을 실시하여 각 군집별 양상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2단계 군집분석 방법은 계층적 군집분석을 사례수가 많은 경우에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하여 대부분의 사례로부터 이탈된 정도가 큰 사례들이 군집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이동귀 외, 2008). 군집분석 후, 분류된 진로정체감 지위 집단별로 진로효능감, 부모 진로지지, 진로장벽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과 다변량 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하고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주요 연구변인들을 중심으로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경향 및 측정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진로효능감은 진로정체감의 하위요인인 진로자기의심( $r=-.48, p<.01$ ), 진로유동성( $r=-.29, p<.01$ ) 및 진로장벽( $r=-.62, p<.01$ )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으며, 나머지 변인들과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진로지지는 진로정체감의 하위요인인 진로자기의심( $r=-.27, p<.01$ ), 진로유동성( $r=-.16, p<.01$ ) 및 진로장벽( $r=-.34, p<.01$ )과는 부적 상관이 있으며, 나머지 변인들과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장벽은 진로정체감의 하위요인인 구체적탐색( $r=-.40, p<.01$ ), 진로전념( $r=-.48, p<.01$ ), 진로전념확신

( $r=-.52, p<.01$ )과 부적상관이 있고, 진로자기의심( $r=.62, p<.01$ ), 진로유동성( $r=.48, p<.01$ )과는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장벽은 진로효능감( $r=-.62, p<.01$ ) 및 부모 진로지지( $r=-.34, p<.01$ )와는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1	2	3	4	5	6	7	8	9
1. 광범위한 탐색	1								
2. 구체적인 탐색	.30**	1							
3. 진로전념(하기)	-.08*	.43**	1						
4. 진로전념확신	.03	.47**	.58**	1					
5. 진로자기의심	.16**	-.30**	-.56**	-.50**	1				
6. 진로 유동성	.29**	-.21**	-.58**	-.40**	.62**	1			
7. 진로효능감	.23**	.51**	.52**	.54**	-.48**	-.29**	1		
8. 부모 진로지지	.11**	.28**	.23**	.41**	-.27**	-.16**	.43**	1	
9. 진로장벽	.01	-.40**	-.48**	-.52**	.62**	.48**	-.62**	-.34**	1
<i>M</i>	3.21	3.47	2.99	3.60	2.67	3.10	3.44	3.38	2.36
<i>SD</i>	.72	.72	.84	.75	.82	.72	.55	.60	.60

\* $p<.05$ , \*\* $p<.01$

## 2. 진로정체감 지위 분류

2단계 군집분석에 의해 진로정체감 지위를 분류한 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진로정체감 성취, 유예, 유실, 확산된 흥미, 무관심한 흥미의 5개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광범위한 탐색, 구체적인 탐색, 진로전념(하기), 진로전념확신, 진로자기의심, 진로유동성을 군집변인으로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고 군집화 일정표의 계수를 확인한 결과 5개의 군집이 제안되었다. 계수는 각 단계에서 얼마나 상이한 군집이 형성되었는지 군집 내 케이스들의 이질성(heterogeneity) 정도를 나타내며 군집의 수를 결정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Hair et al., 2010). 계수가 갑자기 커지는 것은 그 단계의 군집화에 의해 케이스들의 이질성이 급격히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계수가 갑자기 큰 폭으로 증가하기 전 단계에서 군집화를 정지하여(stopping rule) 군집의 수를 결정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각 군집에 해당하는 군집변인들의 평균점수를 초기 중심점(seed points)로 삼아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5개의 군집으로 분류하는 것이 정체감 지위 패러다임에 근거한 각 군집의 이론적 의미(정체감 지위 패러다임과 프로파일의 일치정도)와, 군집의 분포 정도, 선행연구 결과(Crocetti et al., 2008; Luyckx et al., 2005; Luyckx et al., 2008; Marcia, 1989; Porfeli et al., 2011)에 부합하며, 각 군집의 차별적 특성을 가장 명확히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군집분석에 의해 분류된 5개의 군집에 대해 진로정체감 지위의 6개 하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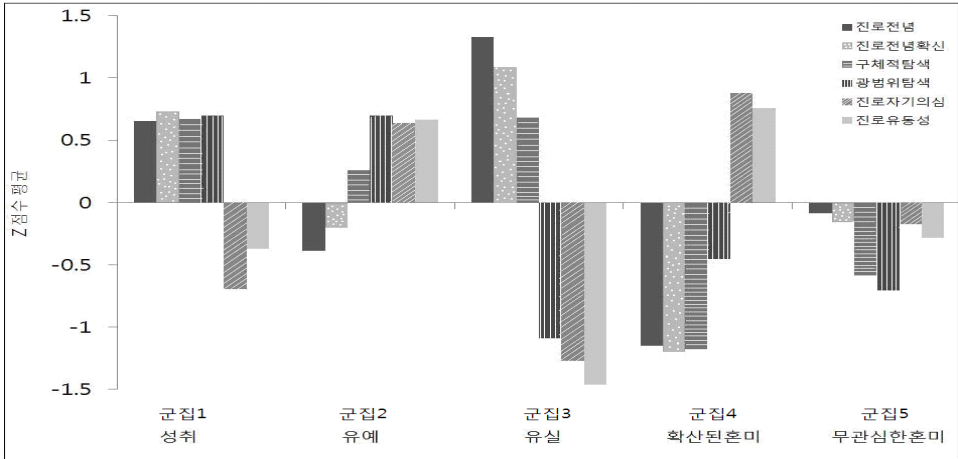
영역이 타당하게 분류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군집에 따라 진로전념 [ $F=289.67, p<.001$ ], 진로전념확신 [ $F=222.90, p<.001$ ], 구체적 탐색 [ $F=187.43, p<.001$ ], 광범위한 탐색 [ $F=242.33, p<.001$ ], 진로자기의심 [ $F=266.88, p<.001$ ], 진로유동성 [ $F=252.29, p<.001$ ] 영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군집분석 결과가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2>와 같으며, 각 군집별 군집변인들의 점수를 표준화하여 제시하였다.

<표 2> 최종군집별 중심점(표준화점수)

	군집 1	군집 2	군집 3	군집 4	군집 5	F	P
진로전념(하기)	.65	-.39	1.33	-1.15	-.09	289.67	.000***
진로전념확신	.73	-.20	1.09	-1.21	-.16	222.90	.000***
구체적탐색	.67	.26	.68	-1.18	-.59	187.43	.000***
광범위한탐색	.70	.70	-1.09	-.46	-.71	242.33	.000***
진로자기의심	-.69	.64	-1.27	.88	-.17	266.88	.000***
진로유동성	-.37	.67	-1.46	.76	-.29	252.29	.000***
N	179	260	106	140	172		
(%)	(20.9%)	(30.3%)	(12.4%)	(16.3%)	(20.1%)		

\* $p<.05$ , \*\* $p<.01$ , \*\*\* $p<.001$

군집 1은 179명(20.9%), 군집 2는 260(30.3%)명, 군집 3은 106명(12.4%), 군집 4는 140명(16.3%), 군집 5는 172명(20.1%)으로 나타났다. 각 군집별 특성을 살펴보면, 군집 1은 진로탐색과 진로전념 점수가 평균보다 높고 진로재고 차원의 점수는 평균보다 낮은 집단으로 진로정체감 성취 지위로 명명하였다. 군집 2는 진로전념 차원의 하위영역인 진로전념(하기)와 진로전념확신의 점수는 평균보다 낮은 반면, 진로탐색 차원의 하위영역인 광범위한 탐색과 구체적 탐색, 그리고 진로재고 차원의 하위영역인 진로자기의심과 진로유동성의 점수는 높은 집단으로 진로정체감 유예 지위로 명명하였다. 군집 3은 진로전념(하기)와 진로전념확신 및 구체적인 탐색의 점수가 높은 반면, 광범위한 탐색, 진로자기의심, 진로유동성 점수는 다른 군집과 비해 매우 낮은 집단으로 진로정체감 유실 지위로 명명하였다. 군집 4는 진로탐색과 진로전념 점수가 모두 낮고 진로재고 차원인 진로자기의심과 진로유동성 점수는 높은 집단으로 확산된 혼미 지위로 명명하였다. 군집 5는 진로탐색, 진로전념, 진로재고 차원의 점수가 모두 평균보다 낮은 집단으로 무관심한 혼미 지위로 명명하였다. 각 군집별 특성을 그래프로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군집별 프로파일(표준점수)

## 2. 진로정체감 지위별 차이

### 1) 진로정체감 지위별 진로효능감의 차이

분류된 진로정체감 지위 군집별로 진로효능감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대학생의 진로 정체감 지위에 따라 진로효능감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로정체감 지위별 평균을 보면 성취(3.82) 지위가 진로효능감 점수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유실(3.81), 유예(3.42), 무관심한 혼미(3.26) 순으로 높으며, 확산된 혼미(2.88) 지위의 진로효능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e 사후검정 결과, 성취와 유실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진로정체감 지위별 진로효능감 차이

종속변수	군집	n	M	SD	F	p	사후검정
진로 효능감	1 성취	179	3.82	.45	120.09	.000***	1, 3>2>5>4
	2 유예	260	3.42	.43			
	3 유실	106	3.81	.42			
	4 확산된혼미	140	2.88	.45			
	5 무관심한혼미	172	3.26	.44			

\* $p < .05$ , \*\* $p < .01$ , \*\*\* $p < .001$

다음으로, 진로정체감 지위별 진로효능감 하위요인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종속변수에 미치는 독립변수의 효과를 검정하는 단변량 분산분석에 이어, 단계적인 독립변수의 효과를 검정하는 단계적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라 진로효능감의 하위요인인 개인탐색효능감[ $F(4, 852)=94.08, p<.001$ ], 직업탐색효능감[ $F(4, 851)=19.24, p<.001$ ], 면접효능감[ $F(4, 850)=4.62, p<.01$ ], 관계구축효능감[ $F(4, 849)=5.75, p<.001$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eta^2$  에 의하면 개인탐색효능감은 총 변화량의 31%, 직업탐색효능감은 30%, 면접효능감은 22%, 관계구축효능감은 20% 정도가 학생들의 지위정체감 지위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따라서 독립변수에 의해 가장 많이 설명되는 진로효능감 하위요인은 개인탐색효능감으로, 종속변수 중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른 진로효능감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진로정체감 지위별 진로효능감 하위요인에 대한 다변량 분산분석

독립 변수	종속 변수	Pillai's Trace	단변량 F	df	p	$\eta^2$	단계적 F	df	p
진로 정체감 지위	개인탐색효능감	.40 (p=.000)	94.08	4/857	.000***	.31	94.08	4/852	.000***
	직업탐색효능감		92.03	4/857	.000***	.30	19.24	4/851	.000***
	면접효능감		58.29	4/857	.000***	.22	4.62	4/850	.001**
	관계구축효능감		54.12	4/857	.000***	.20	5.75	4/849	.000***

\* $p<.05$ , \*\* $p<.01$ , \*\*\* $p<.001$

## 2) 진로정체감 지위별 부모 진로지지의 차이

진로정체감 지위 군집별로 부모 진로지지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라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진로지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위별 평균은 성취(3.64) 지위의 부모 진로지지가 가장 높고, 유실(3.61), 유예(3.34), 무관심한 혼미(3.30), 확산된 혼미(3.03) 순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성취와 유실 지위 간, 유예와 무관심한 혼미 지위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lt;표 5&gt; 진로정체감 지위별 부모 진로지지 차이

종속변수	군집	<i>n</i>	<i>M</i>	<i>SD</i>	<i>F</i>	<i>p</i>	사후검정
부모 진로지지	1 성취	179	3.64	.63	29.07	.000***	1, 3>2, 5>4
	2 유예	260	3.34	.54			
	3 유실	106	3.61	.61			
	4 확산된혼미	140	3.03	.57			
	5 무관심한혼미	172	3.30	.50			

\* $p < .05$ , \*\* $p < .01$ , \*\*\* $p < .001$ 

다음으로, 진로정체감 지위별 부모 진로지지 하위요인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라 부모 진로지지의 하위요인인 부모 정보지지 [ $F(4, 852)=13.01, p < .001$ ], 부모 대화지지 [ $F(4, 851)=11.76, p < .001$ ], 부모 정서지지 [ $F(4, 850)=8.86, p < .001$ ], 부모 경험지지 [ $F(4, 848)=3.09, p < .05$ ]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 경제지지 [ $F(4, 849)=.12, p > .05$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계적 분산분석 결과, 부모 정보지지는 총 변화량의 6%, 부모 대화지지는 10%, 부모 정서지지는 9%, 부모 경제지지는 2%, 부모 경험지지는 7% 정도가 지위정체감 지위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따라서 독립변수에 의해 가장 많이 설명되는 부모 진로지지 하위요인은 부모 대화지지로, 종속변수 중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른 부모 진로지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lt;표 6&gt; 진로정체감 지위별 부모 진로지지 하위요인에 대한 다변량 분산분석

독립 변수	종속 변수	<i>Pillai's Trace</i>	단변량 <i>F</i>	<i>df</i>	<i>p</i>	$\eta^2$	단계적 <i>F</i>	<i>df</i>	<i>p</i>
진로 정체감 지위	부모정보지지	.16 ( $p = .000$ )	13.01	4/857	.000***	.06	13.01	4/852	.000***
	부모대화지지		23.07	4/857	.000***	.10	11.76	4/851	.000***
	부모정서지지		21.49	4/857	.000***	.09	8.86	4/850	.000***
	부모경제지지		3.32	4/857	.010*	.02	.12	4/849	.976
	부모경험지지		14.76	4/857	.000***	.07	3.09	4/848	.015*

\* $p < .05$ , \*\* $p < .01$ , \*\*\* $p < .001$ 

### 3) 진로정체감 지위별 진로장벽의 차이

진로정체감 지위 군집별로 진로장벽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라 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위별 평균을 보면 확산된 혼미(2.92) 지위의 진로장벽 수준이 가장 높고, 유예(2.62), 무관심한 혼미(2.44), 성취(1.99), 유실(1.87) 순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성취와 유실 지위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 진로정체감 지위별 진로장벽 차이

종속변수	군집	n	M	SD	F	p	사후검정
진로장벽	1 성취	179	1.99	.47	116.18	.000***	4>2>5>1, 3
	2 유예	260	2.62	.52			
	3 유실	106	1.87	.47			
	4 확산된혼미	140	2.92	.44			
	5 무관심한혼미	172	2.44	.49			

\* $p < .05$ , \*\* $p < .01$ , \*\*\* $p < .001$

다음으로, 진로정체감 지위별 진로장벽 하위요인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라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직업정보부족[ $F(4, 857)=71.13, p < .001$ ], 자기명확성부족[ $F(4, 857)=128.89, p < .001$ ], 우유부단한성격[ $F(4, 857)=32.21, p < .001$ ], 필요성인식부족[ $F(4, 857)=29.81, p < .001$ ], 외적장벽[ $F(4, 857)=27.56, p < .001$ ]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계적 분산분석 결과, 직업정보부족은 총 변화량의 25%, 자기명확성부족은 38%, 우유부단한성격은 13%, 필요성인식부족은 12%, 외적장벽은 12% 정도가 진로정체감 지위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따라서 독립변수에 의해 가장 많이 설명되는 진로장벽 하위요인은 자기명확성부족으로, 종속변수 중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른 진로장벽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8> 진로정체감 지위별 진로장벽 하위요인에 대한 다변량 분산분석

독립 변수	종속 변수	Pillai's Trace	단변량 F	df	p	$\eta^2$	단계적 F	df	p
진로 정체감 지위	직업정보부족	.49 ( $p = .000$ )	71.13	4/857	.000***	.25	71.13	4/852	.000***
	자기명확성부족		128.89	4/857	.000***	.38	63.26	4/851	.000***
	우유부단한성격		32.21	4/857	.000***	.13	.89	4/850	.473
	필요성인식부족		29.81	4/857	.000***	.12	7.99	4/849	.000***
	외적장벽		27.56	4/857	.000***	.12	5.28	4/848	.000***

\* $p < .05$ , \*\* $p < .01$ , \*\*\* $p < .001$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 발달 양상을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하기 위해 광범위한 진로탐색, 구체적인 진로탐색, 진로전념(하기), 진로전념에 대한 확신, 진로자기의 심, 진로유동성으로 구성된 다차원 진로정체감 지위 평가 모형(VISA)을 토대로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지위를 분류하고, 진로정체감 지위별로 진로효능감, 부모 진로지지, 진로장벽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차원 진로정체감 지위 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 지위를 분류한 결과, 진로정체감 성취, 유예, 유실, 확산된 흥미, 무관심한 흥미의 다섯 가지 프로파일이 도출되었다. 이는 진로정체감 유예가 탐색적 유예와 유예로 세분화된 Porfeli 등(2011)의 연구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성취 지위와 유사한 특성이 있는 탐색적 유예 대신 흥미 지위가 확산된 흥미와 무관심한 흥미로 세분화되었다. Marcia(1980)의 이론에 의하면 정체감은 흥미에서부터 유실, 유예, 성취의 순으로 발달하며, 정체감 흥미는 정체감 탐색과정의 가장 낮은 단계로 부적응적인 지위로 인식된다(신명희 외, 2013; Frank, Pirsch, & Wright, 1990). 확산된 흥미와 무관심한 흥미를 포함하여 진로정체감 흥미로 분류된 학생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대다수의 한국 대학생들이 아직까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명확한 정체감을 확립하지 못하고 진로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진로정체감 지체 현상은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이라는 우리나라의 환경적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맹목적인 대학 입시에의 몰입으로 인해 진로탐색 또는 진로사고가 지체되는 현상을 보이며 자신에 대한 정체감 확립이 구조적으로 지체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선행연구들(이억범, 2007; 이현주, 2009; 최현영, 서영석, 2005)에 의해 지지된다. 또한 흥미 지위가 확산된 흥미와 무관심한 흥미의 두 유형으로 세분화된 본 연구의 결과는 흥미 지위 내에 내적 차이가 존재하며 흥미 지위에 속하는 사람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Archer & Waterman, 1990; Josselson, 1987; Luyckx et al., 2005, 2008)에 의해 지지된다.

확산된 흥미 지위는 다른 지위에 비해 진로탐색과 진로전념 수준이 가장 낮고 진로재고 수준은 가장 높은 지위로, 이 지위에 속한 대학생들은 진로문제에 관하여 적극적인 탐색이나 전념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 결과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혼란스러워하며 심리적으로 가장 불안정한 상태라 할 수 있다(Archer & Waterman, 1990; Luyckx et al., 2005, 2008). 한편, 무관심한 흥미는 진로탐색, 진로전념뿐만 아니라 진로재고 수준도 낮은 지위로, 이 지위에 속하는 대학생들은 진로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탐색이나 전념을 하지 않으며 이러한 자신의 상황에 대해 불안해하거나 상황을 변화

시킴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확산된 흥미와 구별된다(Luyckx et al., 2005, 2008). 이처럼 대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무관심하고 뚜렷한 진로목표가 없다는 것은 최근, 취업하려는 마음이나 의지가 없는 청년 니트족(NEET)이나 대학 졸업 후에도 취업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켄거루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현상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진로정체감 흥미 지위 내에는 이질성이 존재하므로 흥미 상태에 있는 학생들을 보다 세분화하여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진로교육 및 상담 시 획일적 개입이 아닌 각 지위의 특성에 적합한 개별적인 진단과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분류된 진로정체감 지위별로 진로관련 내·외적 변인인 진로효능감, 부모 진로지지, 진로장벽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로정체감 성취와 유실 지위의 대학생들이 다른 지위에 비해 진로효능감, 부모 진로지지 수준이 높고 진로장벽 수준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확산된 흥미 지위의 대학생들은 진로효능감, 부모 진로지지 수준이 가장 낮고, 진로장벽 수준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확산된 흥미 지위에 속한 사람들은 적극적인 탐색이나 전념이 부족한 것으로 인해 고통을 경험하고 있으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거나 의심하고 있는 상태로(Luyckx et al, 2008), 자아존중감이 낮고 우울 및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rocetti et al, 2010). 반면 무관심한 흥미는 현재 탐색이나 전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탐색을 시도하거나 특정한 선택에 전념하고자 하는 욕구가 부족한 상태로 우울 및 불안 수준도 낮았다. 이처럼 진로문제에 대해 관심도 고민도 없고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무관심한 흥미에 비해 확산된 흥미 지위에 속한 학생들은 진로문제에 관심을 갖고 고민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진로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도 낮고 부모로부터 제공되는 지지도 낮다고 인식하며 진로 수행에 있어서 장벽과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무관심한 흥미가 정서적 적응 측면에서 확산된 흥미보다 안정적인 상태라 하더라도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데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향후 독립된 성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진로탐색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진로과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른 진로효능감의 차이는 주로 개인탐색효능감과 직업탐색효능감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진로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개인탐색과 직업탐색 요인이 다른 하위요인들에 비해 진로탐색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진성희, 성은모, 2012)에 의해 지지된다. 이처럼 진로효능감은 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세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진로과제 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효능감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의 진로지지 중에서도 대

화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가 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 자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대화적 지지가 자녀의 진로발달을 촉진한다는 선행연구(Young et al., 2006)에 의해 지지된다. 특히 한국 사회는 서구의 평등적·개별적인 부모-자녀관계와 달리 부모-자녀 간의 동일체적인 관계 의식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으므로 자녀의 진로에 대한 부모의 지지가 자녀의 진로정체감 형성 및 발달에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의 진로문제에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이되, 자녀가 부모에게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나치게 의지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자녀 스스로 자신의 진로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진로설계를 해나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진로장벽 중에서도 자신에 대한 명확성 부족과 직업에 대한 정보 부족이 진로정체감 발달을 방해하는 주요한 장벽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의 진로발달을 돕기 위해 자신의 적성이나 직업에 관련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와 관련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가는데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진로정체감 유실 지위는 진로에 대한 전념 수준과 구체적인 진로탐색 수준이 높으며, 진로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에서도 진로발달 수준이 가장 높은 성취 지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Marcia의 패러다임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는 정체감 유실은 진로에 대한 스스로의 탐색과정 없이 부모나 타인의 가치를 그대로 수용하여 전념에 이른 상태로 유예 지위보다 발달수준이 낮은 부적응적인 단계라고 가정하였다. Marcia는 정체감 지위를 단순히 탐색과 전념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분류하였지만, 이를 확장시켜 보다 세분화된 기준에 의해 분류한 본 연구결과 진로정체감 유실은 광범위한 탐색 수준은 낮지만 구체적인 탐색 수준은 성취 지위와 비슷한 정도로 높으며 진로에 대한 재고 수준도 낮은 특성을 보였다. 이는 진로정체감 유실 지위에 속한 대학생들이 비록 여러 진로대안들에 대해 스스로 광범위한 탐색과정을 거쳐 진로를 결정한 것은 아니더라도, 현재 선택한 특정 진로에 전념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보를 찾고 적극적으로 진로과제를 수행해나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진로에 대한 재고는 현재 전념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하므로(Crocetti et al., 2010), 진로재고 수준이 낮다는 것은 현재 전념하고 있는 진로선택에 대해 의심하거나 진로를 변경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현재 진로선택에 대한 확신과 안정감을 가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진로정체감 유실 지위는 진로효능감과 부모 진로지지에 대한 지각 수준이 높고, 진로장벽에 대한 지각 수준은 낮아 성취 지위와 유사한 발달수준을 보였다. 따라서 진로정체감 유실은 부적응적인 지위라고 할 수 없으며, 진로발달에 있어서는 유실 지위가 유예보다 성숙한 진로발달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경우 진로정체감 유실 지위의 학생들이

유예 지위의 학생들보다 진로태도성숙이 더 높다는 선행연구(이상희, 서유란, 2012)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자신에 의해서건 타인에 의해서건 일단 진로가 결정된 상태일 때 진로태도성숙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우 대학입시 중심의 교육환경으로 인해 중·고등학교 단계에서 자신의 적성이나 진로에 대해 충분히 탐색할 기회가 적다. 또한 한국의 부모-자녀 관계는 서구에 비해 친밀감과 결속력이 강하고 부모가 자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특수성으로 인해 우리나라 학생들은 여러 광범위한 진로대안들에 대해 스스로 충분히 탐색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모나 주변의 의견에 따라 진로에 대한 이른 의사결정을 내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결과는 비록 진로정체감 유실 지위의 학생들이 스스로의 폭넓은 탐색과정을 통해 진로를 선택한 것은 아니더라도 일단 결정된 현재의 진로선택에 대해 의심하거나 유동적인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확신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탐색하며 전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 발달에는 광범위한 탐색과정을 통한 위기의 경험보다는 진로결정에 의한 안정성의 확보가 더욱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본 연구는 개인의 진로정체감을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세분화하여 측정할 수 있는 다차원 진로정체감 지위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진로정체감 지위를 분류함으로써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진로발달 양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진로정체감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진로재고 차원의 추가는 현재의 진로선택에 대해 의심하거나 불안해하는 정도와 진로수정에 대한 유동성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의 진로정체감 발달 경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진로정체감 지위 프로파일에 근거하여 진로정체감을 연구하는 것은 다양한 관점에서 진로정체감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며, 각각의 정체감 지위가 지니고 있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을 이해하는데 있어 진로탐색과 진로전념 차원뿐만 아니라 진로재고 차원을 함께 고려한 다양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진로정체감 지위를 세분화하고 각 지위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 지위 발달은 서구의 학생들과 다른 양상으로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이는 개인이 속한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진로정체감 발달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문화적 맥락 및 환경적 요인의 차이는 개인의 진로목표와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 진로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의 활용 및 방법에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 발달은 백인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서구의 연구결과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진로정체감 발달은 개인의 문화적 맥락에 민감하므로 (Fouad et al., 2008) 진로정체감 발달 이해에 있어서 다양한 문화적 맥락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진로정체감을 형성하고 진로문제를 다루어 나가는 과

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 지위 발달은 서구의 학생들과 다른 양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이러한 발달적 차이가 서양과 동양 문화 간의 차이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한국 학생들에게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인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가능한 광범위한 지역을 포함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대학의 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표집하였지만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우리나라 대학생 집단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보다 다양한 지역 및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반복 연구를 통해 연구 결과에 대한 일반화 가능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연구대상을 일본이나 중국 등 다른 동양 문화권에 속하는 학생들로 확장시켜 진로정체감 지위 발달 양상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진로정체감 발달 양상의 차이가 어떠한 사회문화적 배경에 기인하는지 그 원인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진로정체감 발달에 차이를 가져오는 내적·외적 변인으로 진로효능감, 부모 진로지지, 진로장벽을 주로 다루었다. 진로정체감은 우울, 불안, 스트레스, 심리적 안녕 등 개인의 정서나 적응적 측면과도 관련되어 있으며 진로정체감 형성 과정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다양한 심리적·정서적 변인을 포함하여 진로정체감 지위와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각 진로정체감 지위 특성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 형성 과정에는 학생이 속한 대학의 환경적 시스템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대학마다 진로교육과정이나 제도가 다르고 진로교육이나 진로상담에 대한 장치가 제도적으로 마련된 학교인가 아닌가에 따라 학생들의 직업관이나 진로정체감 형성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추후 대학생들이 소속된 학교 환경의 차이를 고려하여 대학의 진로교육 시스템 및 진로지원 제도 등과 같은 구조적·제도적 요인이 진로정체감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현희(2015). 폴리텍 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탄력성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28(1), 59-78.
- 고미나, 박재황(2011). 대학생의 내·외적 진로장벽,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포부, 진로결정수준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직업교육연구**, 30(4), 259-279.
- 김경미, 배영광, 민이슬, 장성화(2014). 진로정체감과 Krumbolt의 과제접근기술이 진로성숙도, 진로장벽,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11), 497-508.
- 김지영, 김봉환(2015). 중학생이 지각한 아버지-자녀 관계가 자녀의 진로 정보탐색 및 합리적 의사결정력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8(1), 21-39.
- 박지현(2016). 대학신입생의 부모지지, 친구지지와 진로성숙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5), 859-880.
- 서유란, 이상희(2012).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 비교 연구: 진로태도성숙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3(2), 525-542.
- 손보영, 윤민지, 박소현, 임제희(2013).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 다중역할계획태도와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의 일의 의미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2), 1189-1208.
- 송현심, 홍혜영(2010).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율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1(3), 1325-1350.
- 신명희 외(2013).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신선임, 김수임(2013). 대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결과 기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4(5), 2681-2697.
- 안미경, 유금란(2013). 부모의 진로 및 자율성 지지가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0(9), 73-95.
- 오은주(2016). 대학 신입생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장벽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4), 551-574.
- 유수복, 윤혜미(2014).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사회적 지지가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9(3), 405-421.
- 유채은, 조규판(2012). 대학생의 성인애착, 진로장벽, 성취동기가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2(4), 143-166.
- 윤초희(2015).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기본 심리욕구의 매개효과: 자기결정성 이론을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16(4), 129-154.

- 윤초희, 안태희(2015).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학교선택 동기, 진로신념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2(8), 131-157.
- 이동귀, 김혜영, 최해연(2008). 정서 인식 및 표현 양식에 따른 하위집단과 심리적 건강.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1), 63-77.
- 이상희, 서유란(2012). 한국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및 진로정체감과 진로성숙의 관계에 대한 성차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20(1), 37-53.
- 이억범(2007). 대학생의 배경변인에 따른 자아정체감 내적통제성,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 분석. **한영논총**, 11, 237-260.
- 이종원, 최은수(2015).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사회적지지, 진로동기,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 **Andragogy Today :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18(1), 33-54.
- 이현주(2010). 부모의 진로관련행동 및 애착과 남녀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23(1), 41-59.
- 이희정, 김금미(2010).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장벽지각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1(2), 623-640.
- 임선아(2012). 적성에 맞는 진로선택과 부모의 진로선택지지, 진로선택 역경극복 의지가 학업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9(4), 221-238.
- 장수현, 유성경(2014). 대학교 4학년의 구직행동과 일의 목적/의미 및 부모지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35(1), 1-17.
- 장이슬, 송병국(2015).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2(7), 363-392.
- 장진이, 이지연(2016). 대학생의 부모 진로지지, 특성불안, 계획된 우연 역량에 따른 군집 유형별 진로결정 수준의 차이. **아시아교육연구**, 17(1), 47-65.
- 정미경(2015).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결정간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의 매개효과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21(3), 85-106.
- 주영주, 고경이, 정유진(2015). 대학생의 긍정적 정서,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결과기대가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만족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8(3), 65-83.
- 진성희, 성은모(2012). 고등교육에서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와 진로탐색 자기효능감이 진로탐색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직업교육학회**, 31(1), 1-18.
- 최옥현, 김봉환(2007). 대학생의 애착관계 및 유형과 진로탐색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8(3), 1063-1084.
- 최인재(2006). 한국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문화심리학적 고찰. **상담학연구**, 7(3), 761-773.
- 최현영, 서영석(2005).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애착과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671-684.

- 한창훈, 조영아(2016). 고등학생의 부모진로지지와 진로준비행동간의 관계: 자기격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3(4), 79-107.
- Alliman-Brissett, A. E., Turner, S. E., & Skovholt, T. M. (2004). Parent support and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career self-efficacy.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7, 124-132.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 Blasi, A., & Glodis, K. (1995). The development of identity. A critical analysi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elf as subject. *Developmental Review*, 15, 404-433.
- Bosma, H. A., & Kunnen, E. S. (2001). Determinants and mechanisms in ego identity development: A review and synthesis. *Developmental Review*, 21, 39-66.
- Crocetti, E., Schwartz, S. J., Fermani, A., & Meeus, W. (2010). The Utrecht-Management of Identity Commitments Scale(U-MICS): Italian validation and cross-national comparisons.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26(3), 172-186.
- Diemer, M.A. & Blustein, D.L. (2007). Vocational hope and vocational identity: Urban adolescents'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5(1), 98-118.
- Dietrich, J. & Kracke, B. (2009). Career-specific parental behaviors in adolescents'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5(2), 109-119.
- Duffy, R. D., Bott, E. M., Allan, B. A., & Torrey, C. L. (2013). Examining a model of life satisfaction among unemployed adul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0(1): 53-63.
- Fouad, N. A., Kantamneni, N., Smothers, M. K., Chen, Y. L., Fitzpatrick, M., & Terry, S. (2008). Asian American career development: A qualitative analysi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2, 43-59.
- Gushue, G. V., Clarke, C. P., Pantzer, K. M., & Scanlan, K. R. L. (2006). Self-Efficacy, perceptions of barriers, vocational identity, and the career exploration behavior of Latino/a high school student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4(4), 307-317.
- Hirschi, A. (2011). Relation of vocational identity statuses to interest structure among Swiss adolescent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8(5), 390-407.
- Holland, J. L. (1985). *Manual for the Vocational Preference Inventory*.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
- Imran, A., Jabbar A., & Butt, R. (2013). Awareness of Perceived Career-Related Barriers: A Perspective of University Students. *World Applied Sciences Journal*, 28, 189-193.
- Lent, R. W., Brown, S. D., Nota, L., & Soresi, S. (2003). Testing social cognitive interest and choice hypotheses across Holland types in Italian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2, 101-118.

- Lindley, L. D. (2005). Perceived barriers to career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3, 271-287.
- Luyckx, K., Schwartz, S. J., Berzonsky, M. D., Soenens, B., Vansteenkiste, M., Smits, I., et al. (2008). Capturing ruminative exploration: extending the four dimensional model of identity formation in late adolescenc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2(1), 58-82.
- Marcia, J. E. (1980). *Identity in adolescence*. In J. Adelson (Ed.),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pp.159-187). New York: Wiley & Sons.
- Nauta, M. M., & Kahn, J. H. (2007). Identity status, consistency and differentiation of interests,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5, 55-65.
- Noack P., Kracke B, Gniewosz B, & Dietrich J. (2010). Parental and school effects on students' occupational exploration: A longitudinal and multilevel analysi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7, 50-57.
- Nota, L., Ferrari, L., Solberg, V. S. H., & Soresi, S. (2007). Career search self-efficacy, family support, and career indecision with Italian youth.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5, 181-193.
- Porfeli, E. J., Lee, B., & Vondracek, F. W. (2011). A multi-dimensional measure of vocational identity status. *Journal of Adolescence*, 34, 853-871.
- Skorikov, V. B., & Vondracek, F. W. (2007). Vocational identity. In V. B. Skorikov & W. Patton (Ed.), *Career development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pp.143-168). Rotterdam, Netherlands: Sense Publishers.
- Solberg, V. S., Good, G. E., Fischer, A. R., Brown, S. D., & Nord, D. (1995). Career decision-making and career search activities: Relative effects of career search self-efficacy and human agenc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4), 448-455.
- Stringer, K. J., & Kerpelman, J. L. (2010). Career identity development in college students: Decision making, parental support, and work experience. *Identity: A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ory and Research*, 10(3), 181-200.
- Swanson, J. L., & Woike, M. B. (1997). Theory into practice in career assessment for women: Assessment and interventions regarding perceived career barrier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5, 431-450.
- Taylor, K. M., & Popma, J. (1990).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s among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salience, locus of control, and vocational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7, 17-31.

- Turner, S. L., Alliman-Brissett, A., Lapan, R. T., Udipi, S., & Ergun, D. (2003). The Career-Related Parent Support Scale.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36*(2), 83-94.
- Van Hoof, A. (1999). The identity status field re-reviewed: An update of unresolved and neglected issues with a view on some alternative approaches. *Developmental Review, 19*, 497-556.
- Young, R. A., Marshall, S., Domene, J. F., Arato-Bolivar, J., Hayoun, R., Marshall, E., Zaidman-Zaita, A., & Valach, L. (2006). Relationships, communication, and career in the parent-adolescent projects of families with and without challeng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8*(1), 1-23.

\* 논문접수 2016년 5월 1일 / 1차 심사 2016년 6월 9일 / 게재승인 2016년 6월 21일

\* 유혜승: 연세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진로, 학습정서, 개인차, 교수방법 등이다.

\* E-mail: ysepsy@yonsei.ac.kr

## Abstract

## Career Identity Status of Korean College Students; the Difference in Career Efficacy, Career-related Parent Support and Career Barriers

Yoo, Hye-Seung\*

This research explored the career identity status of Korean college students based on the multi-dimensional measure of vocational identity status and further investigated the differences in career efficacy, career-related parent support, and career barriers among career identity status. This research conducted surveys on 1,050 male and female students of four-year colleges located in Seoul, Gyeong-gi, Gangwon, Daejeon, Busan, and Gwangju, and a total of 857 respondents' data were utilized in the final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areer identity status of Korean college students has been categorized into five group types: achievement, moratorium, foreclosure, diffused diffusion, and carefree diffusion. Each status bears distinct characteristics in terms of the sub-areas of career exploration, career commitment, and career reconsideration. Second, the students showed significant distinctions in sensing career efficacy, career-related parent support, and career barriers depending on their career identity status. Third, the status of achievement and foreclosure manifests the highest level of development, whereas the status of diffused diffusion demonstrates the lowest level of development.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development of the career identity status of Korean college students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Western students and more detailed classifications and to-the-point interventions must be prepared before intervening for the purpose of developing career identity of the Korean college students.

Key words: Career Identity Status, Career Efficacy, Career-related Parent Support, Career Barriers

---

\* First author and corresponding author, Yonsei University

